

어두운 바른미래... 분당 위기 평화당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네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오신환 원내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등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비당권파 최고위 당무 거부... 지도부 검증 갈등 절정 평화당, 3지대 창당 놓고 두 동강...DJ 추모행사도 따로따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갈등이 막장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혁신위가 마련한 '지도부 검증안'의 최고위원회의의 상정 여부를 놓고 계파 간 물리적 충돌마저 일어나면서 양측이 이제는 결별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24일 나란히 최고위원회의에 불참, 당무 거부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손학규 대표의 권위와 리더십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최고위 불참을 알렸다.

비당권파에 속하는 안철수계 의원들도 손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혁신위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손 대표가 새 윤리위원장을 임명, 유승민 의원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을 두고는 '치졸한 행동'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혁신위원들은 당 지도부가 혁신위 안건의 최고위원회의의 상정을 거부하는 등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혁신위 1호 안건인 '지도부 검증안'은 비당권파가 손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기 위해 당규에 반해 마련한 것이라는 게 당권파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안건의

최고위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중진 의원들이 젊은 혁신위원들에게 사실상 압박을 가해 혁신안을 처리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당권파는 혁신위 독립성을 규정한 당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이날 안병원 전 국민의당 당무감사위원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평화당도 분당 위기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고(故) 김대중(DJ)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마련한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행사도 집안싸움 탓에 '반쪽'이 됐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싼 당권파와 반(反)당권파 간 갈등 심화로 DJ 추모 행사 앞에서조차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당 지도부는 김 전 대통령 10주기 기념행사로 24일 목포에서 당원 연수를 하고 이튿날 전남 하의도에 있는 김 전 대

통령 생가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추모식을 연다. 특히 25일에는 김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리는 추모식에서 "DJ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하의도 선언'을 발표한다.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 등 당권파 뿐만 아니라 유성열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장병완·윤영일 의원 등 반당권파도 두루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당권파는 정 대표가 최근 자신들이 '해당 행위'를 한다며 징계 조치를 시사한 것을 문제삼아 행사 불참을 선언하고 내달 초 별도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혀 행사는 '반쪽'으로 열리게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DJ의 직통을 잇는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말만 지 평화당이 왜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추경 장기전 모드 전환

한국당 '정경두 해임안 표결' 연계 요구 수용 불가

민주당이 24일로 국회 제출 91일째를 맞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아예 '장기전'에 대비하는 기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등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전면 중단되면서 이달 내 추경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추경 처리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한때 추경을 아예 포기하지는 '강경론'까지 나왔지만, 전남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특별히 당부하고 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 포기론'에

는 선을 긋는다.

그러나 느긋하게 기다리지만 하기에 민주당도 속이 타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이달 내 처리 불가능 물론, 정기국회 때까지도 추경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추경 모두 진통을 겪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뒤에는 처리가 완료됐다. 2000년 이후 국회 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추경은 2조3천억원 규모의 2000년 추경안이다.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이나 걸렸다. 이번 추경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최장 기록의 오명을 쓰게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정 "내년 총선 광주 전 지역구에 후보"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집권 경쟁 진양지 만들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광주를 찾아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의지를 가장 확고하게 드러낼 곳이 바로 광주"라며 "내년 광주 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반드시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민들의 삶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 집권 경쟁의 진양지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광주시민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촛불혁명을 정치 혁명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양국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존 불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재 방한 중이다"며 "미국에 동북아 안보를 해치고 있는 주범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이며,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일군사정보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협정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5·18 옛 모역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靑 조국 민정수석 후임에 김조원 내정

개각·총선 염두 일자리·시민사회 수석도 이르면 오늘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도 교체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정·일자리·시민사회 등 3곳 수석에 대한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이르면 25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차령 수석급 인선을 앞당

긴 것은 조만간 이뤄질 대규모 개각,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수석의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을 가진 인물인 데다, 문 대통령의 신임도 워낙 두텁기 때문이다.

후임 민정수석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감사원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김조원(62) 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단계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았으며 총무처·교통부를 거쳐 1985년 감사원에 입부, 2008년 사무총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2005년에는 청와대로 파견돼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퇴직 관료 출신 그룹을 이끌었으며 대선 후인 2017년 10월에는 KAI 사장으로 선임됐다.

민정수석 자리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역시 이번 인사에서 함께 교체

된다. 정 수석은 지난 대선 직후부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됐으며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정 수석은 이후 서울 관악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예정이다. 후임 일자리수석으로는 현재 일자리기획비서관인 황덕순 비서관과 업계에서 활동하는 외부 인사 등 복수 후보가 검증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노동·통일운동을 두루 경험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역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서울 양천 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들도 내달 안에 거취를 정리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시민 '알릴레오' 휴식...내년 초 '시즌 2'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4일 녹화를 끝으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일단 중단한다. 전열을 정비해 내년 총선 직전 '시즌 2'를 띄울 계획이다.

노무현재단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이날 알릴레오 29회 방송 녹화를 마치고 휴식기에 들어간다.

유 이사장 측 관계자는 "시즌 1을 보완해 시즌 2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가을 추석을 지날 때쯤 방송을 재개할 것 같

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기존 알릴레오의 명칭이나 배포 방식 등 큰 틀을 유지하는 대신, 코너를 추가하고 보조 진행자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콘텐츠 역량을 보강해 기성 언론이 주목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저희 그린장례식장은,

2002년 4월 개업 이래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 차별화로 국내 장례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과열경쟁 속에서도, 오직 정직과 사회적 책임감 하나로 앞만 보고 정진하였기에, 대한민국 나눔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등 빛고를 문화수도의 명소로서, 시·도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오직, 한결같은 애정으로 베풀어 주신 시도민의 은혜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뢰옵기는, 최근 광주시가 그린장례식장에 인접한 舊 광주교도소 부지에 "가칭" 솔로몬파크 조성사업 로드맵을 발표하여, 이에 부응코저 지난 12월 모 건설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부지로 그린장례식장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2019. 6.30일 잔금을 수령기로 하였는 바, 부득이 명도준비를 위한 영업을 2019. 6.29일자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건설 시행사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불이행(잔금납부일, 계약금액, 지급방법 위반 등) 사태로 말미암아 개점휴업 상태인 바, 당사는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데로 폐업을 진행할 것이며, 다만, 계약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현 장소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본 계약과 관련한 명도 시기는 대출 금융기관 및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잔금완납 후 2개월간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도민 여러분께 갑자기 불편함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어떤 결과로도 더욱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그린장례식장(주) 회장 김 영 관외 임직원 일동